

## 협회 직무를 수임하면서

Upon Acceptance of My Duties at the KIRA

오곡백과의 결실이 풍요로운 이번 가을의 의미와 느낌이 유다르게 음미되면서 넉넉함 속에 아쉬움과 공황함에서도 답답함은 시들어 가는 낙엽의 아련함입니다.

온통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우리 회원들 또한 예외 없는 곤혹스러움 속에서 지난 임시총회는 영원히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사안으로 접어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 편치 않고 모두가 패자로만 보여지는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여러 회원님에게 죄송스러움 금할 길 없으며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단순하면서도 복잡다난 하였던 사안을 풀어야겠기에 짧은 기간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보여주신 대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냉철한 모습은 협회 발전의 초석으로 길이 기억 될 것이며, 그동안 협회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일념 하에 많은 선후배 회원 여러분의 충정어린 신고의 가르침과 격려와 위로는 짧은 기간이나마 직무수행 과정에서 길이 기억되고 심사숙고 할 것을 약속드리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제안과 방향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협회를 이끌어갈 발전의 동력이 무엇이고, 새로운 복지를 창출해 나갈 이론과 규범이 무엇인지 조차 혼돈스럽고 불확실한 지금의 상황은 걱정을 넘어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8,000여 회원의 단합된 사명감과 협회 사랑의 힘은 위기가 기회임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시 한번의 탈바꿈을 다짐하여 봅니다.

지금 우리는 대전환의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원의 사기와 활력이 사라지고 무기력한 협회로 전락하여 영원히 되돌아 올 수 없는 나락의 구렁이로 빠지지 않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협회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며 냉소와 불신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면 우리 회원으로서의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안이기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눈앞에 가려진 일 보다는 거시적 안목으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현실감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대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정기총회까지의 짧은 기간이지만 정중동의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안정된 협회와 생명력 있는 집행부의 올바른 자세로 업무수행에 임함으로써 차기 집행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협회의 밝은 내일을 위해 나아갈 길을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는 속죄양의 자세로 미루어진 사안을 재정리 정돈하여 다가오는 총회에 여러분의 찬사를 받고자 다짐을 하면서 말 보다는 실천하는 미덕으로 必死即生이며 必生則死라는 난중일기의 한구절을 음미하면서 산적한 수많은 사안을 열거하기보다는 마음을 비운 자세에서 과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협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협회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8,000여 회원 여러분 !

여러분의 협회를 위한 마음과 함께 우리의 자긍심을 되살리기 위하여 대응적 차원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 협회는 우리가 바라는 바 뜻을 이룰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집행부는 여러분의 뜻에 따라 협회 발전의 전략적 과제를 이루어 내는데 앞장서겠다는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일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움 속에 희망이 더욱 소중한다는 뜻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협회의 새로운 업무에 임하는 인사를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가내 행운과 무궁한 안녕을 기원합니다. 囍